**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으며
행동하시는 분,
우리의 목자, 우리의 안식,
씨 뿌리는 분이신 그리스도**

**12/09 월**

**마 9:20-22**
**20** 보아라, 십이 년 동안 출혈로 고통받아 온 한 여인이 뒤에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 술을 만졌는데,
**21** 이것은 그 여인이 ‘내가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22**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고 “여인이여, 안심하십시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시자, 그 여인이 그 시각에 나았다.

**민 15:38-40**
**38**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 대대로 그들의 의복 끝자락에 술을 만들고 그 의복 끝자락의 술에 청색 끈을 달게 하여라.
**39** 이 술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서, 너희가 이것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하고, 또 너희 마음과 눈을 따라 곧 너희를 음행하게 한 것을 따라 구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40** 너희는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 14:36**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옷 술만이라도 만지게 해 주시기를 간청하였으며, 만진 사람은 모두 완전하게 나았다.

**눅 8:45-48**
**45**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하시니, 모두들 자기는 아니라고 하였다.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 밀어 대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나,
**46**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나를 만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47** 그 여인이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고는, 떨며 나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만진 이유와 어떻게 즉시 낫게 되었는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밝혔다.
**48**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십시오.”

**히 12:2**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12/10 화**

**시 23:1-3**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한 것 없으리.
**2**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3** 내 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들로 안내하시네.

**딤전 1:4**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요 21:15**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먹이십시오.”

**롬 12: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요 7: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롬 8: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 9:36**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며 내버려졌기 때문이다.

**12/11 수**

**시 23:4-6**
**4** 제가 비록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저를 위로해 줍니다.
**5** 주님께서 저의 대적들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제 잔이 넘칩니다.
**6** 제 평생에 선과 자애가 분명 저를 따르리니 저는 여호와의 집에 평생토록 거주하렵니다.

**딤후 4:22**
**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후 12:7-10**
**7** 또한 내가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서 내가 너무 높아질까 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전달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를 쳐서 내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8** 나는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도록 해 달라고, 이 일을 두고 주님께 세 번 간청하였습니다.
**9**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창 14:18-20**
**18**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19** 그는 아브람을 축복하며 말하였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20** 원수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람은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다.

**고후 13: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12/12 목**

**마 11:28-30**
**28**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30**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히 4:9-10, 12**
**9**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의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10**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그의 일을 마치고 안식합니다.
**12**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 5:39-40**
**39**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40** 그런데 여러분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 30:15**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돌아와 안식해야 너희가 구원을 얻으며 잠잠하고 신뢰해야 너희가 힘을 얻게 되건만 너희는 원하지 않아

**12/13 금**

1. **마 13:3**
**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
2. **골 2: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3. **고전 3:7, 9**
**7**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9**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4. **벧전 1:23**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 없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5. **요일 3:9**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마다 죄짓는 것을 일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6. **벧후 1:3-4**
**3**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7. **12/14 토**
8. **엡 3:16-17**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9. **벧후 1:5-11**
**5**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은 각별히 부지런하여 여러분의 믿음에다 미덕을, 미덕에다 지식을,
**6** 지식에다 자제를, 자제에다 인내를, 인내에다 경건을,
**7** 경건에다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에다 신성한 사랑을 더하여 넘치게 공급하십시오.
**8**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또 계속해서 많아지면, 여러분을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으로 조성되게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9** 이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은 눈이 멀어, 멀리 보지 못하며, 자기의 옛날 죄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은 사람입니다.
**10** 그러므로 형제님들, 더욱 부지런하여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행한다면, 언제라도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1**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고도 넘치게 주어질 것입니다.
10. **12/15 주일**
11. **마 13:18-23**
**18** 그러므로 여러분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으십시오.
**19**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씨가 뿌려진 사람입니다.
**20** 또 흙이 얕게 덮인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21** 그의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사람입니다.
**22** 또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말씀이 숨 막히게 되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23**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인데, 반드시 열매를 맺어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육십 배, 또 어떤 사람은 삼십 배로 거둡니다.”